

제25과 짐승 모양으로 예언된 세계 역사

[단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사람 모양으로 세계의 역사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직접 역사의 진행과 미래를 계시하신다. 역사의 진행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제국들이 흥망성쇠이며 역사는 아주 불안정한 중에 진행되며 진행될수록 그 가치가 저하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천국이 건국되는 것으로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될 것을 2장에서 계시하셨다.

이제 7장 8장은 역사를 짐승 모양으로 계시하신다. 이것은 이 세상 제국들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그 속성을 통하여 진행되는 역사의 상태를 계시하는 것이다. 세상 제국들의 속성은 바로 맹수들과 같다는 것이다.

1.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은 어떤 계시를 보았는가?

[단7:2-8]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불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마리 맹수가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바다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표상하고, 바람은 전쟁을 표상한다.

[계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얇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렘4:11-13]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12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13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렘49:36,37]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3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

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암1:14,15]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슥7:14]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헤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상의 말씀들이 바다와 바람이 열국과 전쟁을 표상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다.

2.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무엇을 표상 하는가?

[단7:16,17]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17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단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이 말씀은 짐승이 나라를 표상하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17절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왕국이다. 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 마리 짐승은 네 큰 왕국이다.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은 바로 이 나라들이 열국 중에서 전쟁으로 세워지는 왕국들이라는 것을 표상한다.

3. 특히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 뿔은 무엇을 표상 하는가?

[단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단8: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을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뿔도 나라를 표상한다. 짐승도 나라이지만, 뿔은 분열되어 세워지는 나라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뿔이 세력을 표상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사상이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있는 이 뿔들은 나라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4. 이 열 뿔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단7: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단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넷째 짐승이 표상하는 나라는 10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인데 그런 분열된 나라가 성립된 후에 11째 나라가 일어나서 먼저 나온 세 나라를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8절 참고).

5. 작은 뿔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단7: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단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나중에 나온 11째 뿔은 심히 강한 세력임이 틀림없다. 또한 그것은 눈과 입이 있다. 이것은 살필 줄 알고 명령하며 주장하는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 확실하다.

6. 작은 뿔은 어떤 일을 했는가?

[단7: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단7:24,25]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단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때는 해(年)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1년, 2년, 반년이다.

[계12:6,14]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말씀에 의하면 세 때 반과 1260일이 같은 기간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예언상 한 달이 30일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세 때 반은 곧 3년 반이며, 그것은 1260일이고 예언상 1일은 역사 연대로는 1년이다

[렘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일 일이 일 년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1260년이다. 작은 뿔의 전성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7. 이 작은 뿔의 역사적 정체는 무엇인가?

[단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단2:40] 네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뿔을 것이며.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와 같다. 그러므로 그것은 로마이다. 그러므로 앞의 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의 금 머리부터 놋 다리에 해당되는 같은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 곧 바벨론, 메데바사, 곱은 갈비 셋을 입에 물고 있다(547 리디아, 540 바벨론, 525 애굽). 헬라, 셋째 짐승인 헬라는 머리가 넷이다.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 네 나라로 갈라진 것을 가리킨다(프톨레미, 캄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장군의 나라들). 넷째 짐승은 로마이다. 열뿔은 열 발가락과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게르만 민족 대 이동으로 로마 판도에 건설된 열 나라들이다. 그것은 앵글로 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롬바르드, 부르군디아, 수에바이, 비시고트, 반달스, 헤룰리, 오스트로고트 이다.

세 뿔이 나중 나온 작은 뿔에게 뿌리 채 뽑혔는데, 그것은 헤룰리(493), 반달스(534), 오스트로고

트가(538년) 작은 빨 세력에게 망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일을 한 장본인을 역사에서 찾으려면 로마 카톨릭인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알게 된다. 로마 카톨릭은 서 로마가 망하자 로마의 왕권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동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533년 로마교회의 감독이 모든 기독교의 머리라는 칙령을 발표하였고 이것을 반대하는 아리안 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 칙령을 거부한 세 나라를 538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므로 이 칙령이 실시되게 되었다. 그래서 538년부터 교황 피우스6세가 나폴레옹에게 잡혀 죽을 때까지 1260년간 작은 빨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8.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인가?

[단7:18]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단7:21] 내가 본즉 이 빨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작은 빨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의 성도들이 이 승리를 누리게 되며, 작은 빨과 그와 같은 세력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며, 이런 역사적 확인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으며 성경의 계시를 확신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